



프랑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②

# 공동주택의 중간층을 제거

## - 빛과 바람을 통과시켜 압박감을 경감

307가구를 수용하는 이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. 건물 중간층을 세군데 제거한 것이다. 건물은 16층 건물로 남북방향의 길이는 한 가구분의 폭인 약 10m 정도지만, 동서방향의 길이는 약

180m나 된다. 개·보수전에는 면적상 1ha나 되는 장벽이 우뚝 서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.

주요한 리모델링 내용은 기능면의 향상과 환경대책에 있다. 설계를 담당했던 로랑·이스라엘씨는 “건축 20여만의 리모델링이지

만 그 동안의 유지 관리는 충분하지 못했다. 치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도 있고, 설계 연구면에 있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싶었다”라고 말했다.

기능면에 대해서는 노령화에 맞추어 외장개·보수 등을 실시, 하층부에서 중층부에 걸쳐 증축 및 상하 두 개층을 한 가구로 개·보수를 하기도 하였다. 환경대책으로는 건물내의 일부가구를 4개층을 한꺼번에 제거하였다. 일광을 부지 북측에 전달하여 남북 방향으로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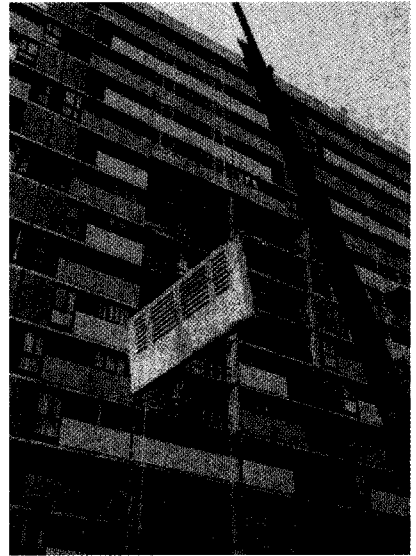


남쪽에서 본 외관. 건물의 동서방향의 길이는 약 180m이다. “장벽”의 일부를 제거하여 압박감을 완화시켰다. 당초에는 다섯군데를 제거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주거용으로 전환시킬 가구수가 맞지 않아서 재고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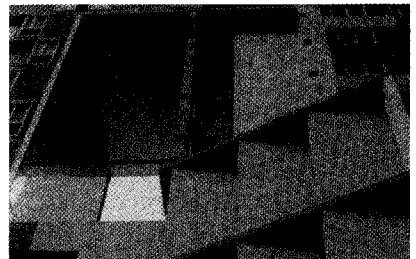
계획으로 주변환경을 배려한 점이 특징이다. 1층에 있는 가구도 일부를 제거, 엔도란스를 넓히거나 새롭게 통로를 확보하기도 하였다. 빛과 바람처럼 사람들의 이동에 있어서도 남북통로가 생김으로써 편리하게 되었다.

파리근교의 이 지역은 약 4천가구나 되는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.

이는 192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리모델링 공사는 80년대 중반에서부터 수년에 걸쳐 실시해 오고 있다. 이 전에는 장벽과 같이 심플한 형태였던 여러 개의 주거동을 이와같이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다.〈外誌에서〉



시공중인 모습. 8층에서 11층까지의 4층분의 가구(전부 3군데)를 제거하였다.



북측면에서 본 세부 전경. 제거된 부분의 벽은 금속재 판넬을 붙여서 빛을 반사시키고 있다. 하층부의 일부는 가구면적을 넓혔다.

### 설계자의 리모델링 관점

**무조건 허무는 것은 낭비 저 예산으로도 훌륭하게**

잘만 손봐준다면 원래 건물의 좋은 부분은 보존할 수 있다. 신축의 1/3의 정도의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공사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 포인트다. (로랑·이스라엘)

**‘기술과 기존 건물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접목’**

개·보수공사는 하나의 이론이 모든 부분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, 또한 매우 흥미롭다.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 포인트다. (베르나·그림)



구멍을 뚫은 공동주택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주거동. 개·보수전은 이 건물과 같이 변화감이 전혀 없는 맛잇한 외관이었다.



북쪽에서 본 부지 주변의 전경. 주거동의 일부를 제거한 것으로 남북간으로 빛과 바람과 시선이 통하도록 하였다.